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수행에 대한 역할 인식 연구

- 난민전문통역인 대상 인터뷰를 중심으로 -

문경희

이화여자대학교

Email wenqingxi@naver.com



목 록

01 / 서론

02 / 난민법과 난민 통역에 관한 연구

03 / 연구 내용

04 / 결론



1. 서론



- 난민면접 통역 오류/통역인의 비전문성을 꼬집는 기사 증가
- 난민 심사 과정의 핵심 사항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 귀국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은 과거 박해 경험을 자세히 진술해야 함
- 신청인 스스로 조직화하여, 법적 절차에 맞게 구 조화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자기 표현 필요성과 방법을 인지하지 못함(김슬기, 2012)
- 진술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통역인의 전문성이 요구됨

서울경제 PICK 2019.11.06. | 네이버뉴스

법무법인 광장, '통역 오류'로 난민 불안정 받은 이집트 박해 언론...
진술이 통역과정의 오류로 '일하기 위해 입국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A씨를 대리해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

| 이집트 언론인, 우여곡절 끝 난민 인정..... | 이데일리 | 2019.11.06. | 네이버뉴스



국민일보 8면 2단 | 2018.07.17. | 네이버뉴스

난민인권센터, 통역 오류 피해 사건 인권위에 진정

통역 오류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국민일보 7월 9일자 6면 참조)가 잇따르면
서 난민 지원 시민단체가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



정책브리핑 | 2019.12.03. | 네이버뉴스

[언론보도 해명] 법무부 “보도에 인용된 통역 오류, 실제 발생한 사례 아니다...

있어 통역 오류로 인해 난민심사관이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난민법 제15조(난민면
접조서의 확인) □ 향후에도 난민전문통역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교육으로 공정한 난민심사가...

| [단독] 무슬림 종파 바뀌고... 묵숨 ... | 서울신문 PICK | 2019.12.03. | 네이버뉴스

국민일보 PICK 6면 TOP | 2018.07.09. | 네이버뉴스

[단독] 줄잇는 난민 신청자 영터리 통역에 눈물... 드러난 난민심...

국민일보가 8일 난민인권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A씨에 대한 난
민심사 과정에서 아랍어통역 오류를 인정한 A씨는 난민전문통역인을 하면서 68...



<2022.11.18 캡처화면>

2.

난민법과 난민 통역에 관한 연구

○ 해외 난민(망명) 통역 및 통역인 연구

- 난민 면담 과정에서 통역사의 문화간 중재역할, 정치적 망명 신청 절차에서의 통역 습관, 난민 통역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난민 면담 과정의 담화 분석, 권력 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진행 (Inghilleri 2005, Barsky 2014, Kalina 2015, Bergunde&Pollabauer 2019 외 다수)

○ 국내 난민 통역 및 통역인 연구

- 통역 품질 평가 중, 민간 단체나 친구, 지인을 통한 통역 만족도에 비해 법무부 주선 통역인의 통역 만족도가 낮음(고문현, 2011)
- 난민 재판 통역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사법 통역사 교육 프로그램과 통역사 자격 검증 방안의 필요성 제기(이지은, 2012)
- 면담 진행 방식으로 인한 내러티브의 불평등 발생, 통역인의 '문화 간 중재자' 역할 강조(김슬기, 2013)
- 판례연구를 통해 오역 판정의 1차적 근거는 진술 일관성 등 근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진술의 신빙성(장원경, 2014)
- 난민 통역 고유의 문제, 쟁점을 점진하며, 다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제시(이향, 2022)

○ 난민법, 난민인정절차 관련 연구

-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사건' 분석(김연주, 2020) 외 수용 실태, 난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진행 중

○ 난민전문통역인 선발 및 운영 현황

- 2012년, 최초 선발, 18개 언어, 71명의 난민 전문 통역인 위촉
- 2015년, 23개 언어, 222명의 난민 전문 통역인 위촉
- 2019년, 러시아어, 아랍어 통역 담당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 2019년 법무부 난민과 한국 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난민 통역 능력 검정시험" 진행
- 2021년 난민 전문 통역인 인증 제도 도입, 10주간 온라인 교육 및 평가



3.

연구 내용





3-1. 인터뷰 개요



03-01 인터뷰 개요

○반구조화 일대일 인터뷰

기 간

- 2022년 1월 ~2022년 3월

대 상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 난민전문통역인 8인
 -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10시간 이상 난민면접 통역을 수행한 통역인
 - 내국인 통역사 3명 + 이주민 통역사 5명

통역 언어 (복수포함)

- 방글라데시어, 벵골어, 힌디어, 우르두어, 중국어, 영어, 따갈로그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등

영 역

- 유입 경로 및 동기
- 배경지식
- 통역 특징
- 교육 내용
- 자기 평가

○인터뷰 대상자 기본 정보

No	연령	성별	최종학력	통역언어	한국 거주기간	난민면접 통역기간
A	20대	남	대학교중퇴	방글라데시어/벵골어	약12년	7~8개월
B	40대	여	전문대졸	힌디어/우르두어	내국인	7년
C	50대	여	석사수료	중국어	약18년	10년
D	50대	여	석사	영어	내국인	10년
E	40대	여	대졸	중국어	약20년	9년
F	30대	여	석사	영어/따갈로그어	내국인	4년
G	30대	여	대졸	우즈베키스탄어/러시아어	약11년	6년
H	30대	남	대졸	말레이어	약15년	2년



3-2. 인터뷰 내용



03-02 인터뷰 내용 - 유입 경로 및 동기 1/5

"**난민통역인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방송활동을 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사람 중에 좀 알아봐주거나, 좀 유명하긴 해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서울 출입국에서 난민과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SNS 통해서 뱅골어 통역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급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지요. **시작하기 전에 교육 받고, 안내사항 다 받고, 서약서도 쓰고 그랬습니다.**" [참가자 A]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경제가 안좋다 보니 일거리가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한번 해볼래라고 물어봐서 친구에게 연락처를 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테스트를 보거나, 이력서를 내지는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처음 하기 전에 학력, 프로필을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연락이 처음 왔을 때, 바로 하게 됐습니다.**" [참가자 H]

"제가 아마 인천 국제교류재단에서 본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공고를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통역을 했었으니까. 시에서 나는 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의전통역을 위주로 많이 하고, 시청, 구청, 교육청에서 많이 했으니까, **난민통역도 통역이니까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가자 C]

- 희소언어(뱅골어, 힌디어, 우르두어 등)의 경우, 출입국 기관 면접관 등이 먼저 문의 혹은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음
- 희소언어 통역인의 경우, 사전에 통역 혹은 난민통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통역 수행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음 → 사전 교육 시스템 필요

03-02 인터뷰 내용 - 유입 경로 및 동기 2/5

○ 처음 난민 통역 업무 수행 시의 어려움

"질문이나, 단어나, 전문적인 용어나, 뜻은 알지만 방글라데시어로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힘들었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통역 스킬 문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해야 하니까요.**"
[참여자 A]

"난민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난민의 모습이 달라요. 나보다 럭셔리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 난민이 뭐지라는 생각. 너무 현장바로 투입되니까, 특히 **영어는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많아 거기서 오는 충격. 그렇지만 통역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배우던 영어와 다른데.** 아프리카 신청인은 영국식 영어를 사용해서, 내가 영국에서 거주한게 도움이 돼서 영국식 영어를 고수하고 있어요." [참여자 D]

"15년에 위촉되긴 했지만, 이게 모든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연락이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락이 와도 내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스케줄이 안맞으니까요. 그렇게 매년 좀 몇 번 연락이 오셨는데, 매번 안되서 2018년에 타이밍이 맞아 시작을 한거고요. 2015년 내가 그때 **사법 통역을 공부했을 때하고 2018년도는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어지고, 사전 정보도 많이 없고 그냥 들어갔는데, 제 첫 통역이 이제 당연히 제가 영어권이니까 아프리카였는데 발음도 그렇고 그 나라의 사전 지식, 그나라의 행정구역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는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참여자 F]

"통역이라는 게, **난민 통역이란 게 준비없이 하게 되고 배경이라는 게, 어떤 말을 하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참여자 H]

- 포괄적인 배경지식의 부재 : 필요한 배경지식의 내용, 사용될 용어의 특징, 국가 정황, 특정 문화의 특징 등등

○난민 통역 업무를 지속하는 이유

"소명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도입했고, 이것을 하는데, 내가 1세대로서 소명감이 생긴 것 같고, 물론 영어 언어의 특성상, 다른 데 나가면 학원이나 쓸모가 있는데, **결혼해서 경제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새 길을 개척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참여자 D]

"그래도 나름대로 시급이 그나마 괜찮고 그때는 또 **일이 많으니까 오래하니까, 수입이 괜찮았습니다.**(일이 많았으니까 수입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요. 그때는 그랬지요. 오전 오후 몇 시간씩 하루에 한 6시간 몇시간씩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요?" [참여자 E]

"**첫 번째는 보수겠지요.**(보수의 개념이 다른 통역사님들에 비해 자주 안정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나요? 시급이 높다고 느끼시나요?) 아, 둘 다예요." [참여자 G]

"재미있어서요. 사실 사람의 생활 배경, 이야기 듣는 것도 나름 재밌어서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는 통번역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도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요.**" [참여자 H]

- 경제적 이유 → 이벤트성 사회활동이 아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보는 관점이 많음
- 그 외, 사명감 및 자기 개발 목적

○난민 통역 수행 과정에서의 성취감

“이 사람이 진짜 난민이라는 생각이 들 때, 뭔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때 성취감이 들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랑 뭔가 말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전달해줘야 뭔가 제대로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문제지요.” [참여자 C]

“문제없이 잘 끝날 때? 그럴 때?(문제없이 잘 끝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통역 중에 심사관이나 신청인 양쪽에서도 다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런거요.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그렇고 양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다 했고,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잘 할 때. 원활할 때. (“문제없이”의 개념이 사건 사고 없이 원활할 때인가요?) 네.” [참여자 G]

“그 사람이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리뷰할 때 신청인이 ‘맞아 맞아’라고 할 때.” [참여자 H]

- 성취감 : 성공적인 의사소통
- 좌절감 : 의사소통 불가 상태, 업무과정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난민 통역 수행 과정에서의 좌절감 - 1

“심사관과 신청자, 통번역자가 문화적인 소통의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심사관이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신청자들도 자격이 안되는데, 뻔한 거짓말, 비상식적인 말을 할 때, 통역인으로 티를 낼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뭐하고 있나 싶다. 이 일이 무의미한 건 아닌가 싶다. 진짜 저도 중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확실히 **정말 중국에서 인권 탄압을 받거나 박해를 받아 자유민주주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는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자 E]

“**최종적인 결론이 없는 일에 내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하면 우리가 면담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최종이 아니고, 또 다른 절차를 밟고 또 밟고 하고, 내가 분명히 인터뷰 통역을 했던 사람이 또 2차 신청을 해서 내가 또 그 면담을 통역하게 들어갔을 때 그 뭔가 허탈함이 있다.” [참여자 F]

“까다로운 사람이 올 때. (까다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 녹음녹화 안내하는데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고 법 조항 다 얘기해보라고 하고, 뒷사람 불러오라고 하고, 못 믿는다고 하고. 저를 못 믿는게 아니라. (한국 제도를 못 믿겠다?) 그렇지요. 그 **사람은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 하면서 말을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때는 확실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알고, 계장님(면접관)이 알아주실 때는 안힘들어요.**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괜찮다?) 네.” [참여자 G]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을 때. 그 사람과 똑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 같은 문화에서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지 모를 때요.** (구체적으로는요?)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참여자 H]

○난민 통역 수행 과정에서의 좌절감 - 2

“교리는 너무 하니까 이제 기억하는데, 책 제목 같은 건 물론 직역해서 나오는 게 많지요. 그게 한국에서 뭔가 정형화된 틀 같은 책 제목 같은 게 있더라구요. 그런건 찾아봐야 되고, 모르고 직역해버리면, 면접관님이 다른 책인 지 착각할 정도로. 물론 통역인이 여러명이다 보니까, 똑 같은 책 제목이라도 번역한 책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통역인이 알고 있는 책 제목, 즉 배경지식이 면접관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책은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있고요.” [참여자 C]

“박해 사유가 5개 잼아요. 그 분야 관련된 지식이지요. 그리고 저는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정치 상황, 당, 다 외워야 되고 지역명도 외워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주로 제가 공부하는 거. 요즘 주로 그거 해요. 러시아 기독교, 정교회. 그 다음에 정치 관련된거, 정당에 대한거. (자료 제공은요?) 없어요. 인터뷰 중에 이거 내가 부족하다, 가서 공부해야겠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자료를 뽑아서 몇 번 보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에.” [참여자 G]

“문화에 대한 지식. (같은 문화권 사람을 통역하지 않나요?) 난민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민 신청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교육수준이 낮아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신 분이다 보니, 말도 교육받은 사람처럼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 나라에 주로 쓰이는 말, 그 문화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언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문화까지 알아야 통역이 가능하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지방 문화가 조금씩, 사투리가 있고 지방마다 크진 않지만 문화가 있어요. 그쪽에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알아야 수월하게 통역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과 저 지방이 쓰는 말이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언어는 같지만 쓰는 의미가 다른 경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그쪽 사람이다 보니, 만났던 사람, 경험을 통해 알게 되요.”

[참여자 H]

가장 큰 차이는 난민통역은 날 것이고, 다른 분야는 정제되서, 통역이 잘했네, 못했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확률이 별로 없지요. 출입국 본부장님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스크립트와 결과물이 나온 상태였어요. 통역 자체가 차지하는 분야가 별로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보다 포괄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더 편하고 보수도 좋고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통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도 쉽지요. 난민 통역의 경우 통역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하는 그대로 말하라고 하는 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 것까지 내가 부담해야 해요. 거기다 다 녹화되는 상황이고, 그런 분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참여자 D]

매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경험으로는 **난민 통역은 어떤 대화가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딱딱 그냥 생각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언제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나는 그거를 정리해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교육 통역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통역에서는 그렇지요. 그리고 나는 사전 정보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숙지하고 공부를 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이런 이야기를 세미나에서 했을 때 나도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자가 하는 말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스크립트나 PPT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다 똑같이 하는데, 난 민면접에서 신청자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지를 모르니까, **가끔씩 나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내야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난민 통역에서는 하지요.** [참여자 F]

- 난민 통역의 특징 중 하나로, “예측 불가능성” 강조

◦타 사법 통역과의 차이 - 1

난민 통역은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주는 것도 없고, 그 자리 가서야 즉흥적으로 하는 통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법원 통역은 그래도 사전에 뭔가 자료를 받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의 경과가 무엇인지, 피고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요. 그런데 난민 통역은 그런게 없잖아요. 백지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스릴 있다면 실제로 난민 통역이 더 스릴 있는 거지요. [참여자 C]

피의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난민 통역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문화적 전달력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고, 수사통역은 사실 자체의 객관성 전달에 신경을 써야 해요. 문화적 전달, 문화 이해력, 추상적이라서 문화 전달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긴 해요. 그게 원어민이라서도 아니고, 난민의 특성이 그런 거 같아요. 동성애자의 경우 한국도 아주 관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명예살인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나라는 동성애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해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박해의 위험, 생명의 위험에 대한 역지사지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이걸 사실 심사관이 지녀야 하는 역할이지만, 통역인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박해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이유에 대해 비상식적, 거짓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사법 통역과 다른 것인데, 사법 통역은 범죄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이해하는데, 박해 상황은 한국의 현실상황과는 다른 환경, 상황,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배경지식이 필요해요. [참여자 E]

◦타 사법 통역과의 차이 - 2

법원은 그때 느꼈던 건, 감정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그 팩트만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거요, **난민 통역은 이 신청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줘야 하니까, 상황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물어봐도 언제나 자기의 감정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때 너무 무서웠다. 그때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그랬다. 근데 선생님(면접관)들이 아무리 팩트나 그 정황을 딱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도, 신청자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면담을 진행 중단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얘기까지 사실 불필요한 내용까지 다 들어주는 것 같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F]

- 사법통역 : 피고인/용의자의 신분, 한국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객관적 행위/사건 여부 확인
- 난민통역 : 신청인(민원인)의 신분, 해외에서 받은 주관적 감정(공포)/위협에 대한 서사

○신청인과 면접관의 배경 차이가 끼치는 영향 - 1

내가 하는 노하우는 우선 통역이기 때문에, 심사관이 서면어, 공무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대로 통역해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심사관에게 양해를 구해요.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신청인과 다를 수 있어요.** 체포의 개념이 심사관이 생각하는 체포의 개념은 사법, 수배의 개념일 수 있지만 신청인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신청인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이해가 가까울 수 있게 풀어줘도 되냐고 물어봐요. **사실 일반 사람들도 법률 용어 잘 몰라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통역이니까 내가 하는 말 그대로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이 안끝나요. 그건 네이티브라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용어와 생활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말을 풀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 그대로 전달하라고 교육하는데, 공무원은 어느 정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통역하면 상대가 못 알아 듣기도 해요. 신청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전달해야 해요. **같은 말도 문화 수준에 따라 통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가 불가능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심사관이 서면어를 쓰면 그렇게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판단해서 편한 언어로 설명을 해주기도 해요. **중국인의 경우 종교가 뭐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해요. 교육 받은 내용은 현실에서 실현이 불가능해요. 대답도 자기가 말하는 습관대로 이야기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한국어로 전환하기 어렵긴 해요.** 심사관에게 인지를 시켜요. 일단 어떤 말은 잘 이해를 못한다 같은 것을 전달해서 심사관도 판단이 되게 해요. 언어 흐름에서 적당하게 통역사가 밸런스를 맞춰요. 통역인이 조정하지 않으면 인터뷰가 불가능해요. [참여자 E]

○신청인과 면접관의 배경 차이가 끼치는 영향 - 2

저는 대부분 문화적으로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통역을 하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얘기한 데로 그대로 통역하되, 제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통역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거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통역하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통역한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될 때는요?) **먼저 신청인이 설명하길 기다려요. 그런데 신청인이 대답을 잘 못하거나, 계장님이 먼저 물어볼 때도 있어. 내가 아주 자발적으로는 안해.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신나게 설명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여쭙보는 분들. [참여자 G]

되게 많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신청인에게, 전문적인 언어,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대로 통역했을 때 그 친구 이해를 못해요. 그 때 제일 답답하고 힘들어요. 심사관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문용어를 쓰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다. 쉬운 용어로 쓰면 안될까 하고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똑 같은 말이라도 제가 알아서 통역하지 않아요. 심사관이든, 신청인이든,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말이 안되어도 그대로 통역해요. (개념이 다를 때는?) **그럴 때 혼란스러웠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에 면담하다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심사관에게 말을 해요. 아마도 앞서 이야기하려고 하신게 이런 거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면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참여자 H]

- 담화적 특징 : 제도적 담화 → 어휘 선택 / 순서 구성 / 전체적 구조 조직 등의 특징을 가짐
- 용어의 개념적 이해의 불일치 : 신청인과 면접관이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문화적 특징 : 동일 국가 내에서라도 주로 활동하는 문화권의 특징에 따른 논리구조나 은어 사용

03-02 인터뷰 내용 - 교육 내용 1/2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처음이고,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전달했으면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실제 과정처럼 약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참여자 A]

“이번에 실제 인증제를 하면서 통역 스킬 위주로 하면서 텍스트 선정 자체가 법정 용어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실제 신청인들은 법정 용어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용어를 써도 알지도 못하고, 실제 어떤 분들은 공안이 뭔지, 경찰이 뭔지, 파출소가 뭔지 구분이 안가는 막하는 표현이 많은데, 그렇게 보면 이 교육 자체는 큰 도움이 안 된 거로 볼 수 있거든요. 또 언어와 상관없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도움이 안되요. 현장감이 떨어지는 교육이에요. 언어별로, 나라별로 사례를 따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 기간이 길었는데, 교육을 자의로 결정해서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안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9년도 살짝 인증 시험 보기 전에 교육을 했어요. 이번에도 똑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안바뀌고, 동영상 자체도 안바뀐 내용인데, 그러면 들을 이유가 없지요. **이게 새로 변화된 내용도 아니고, 타겟이 정해진 식으로 겨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통틀어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몇 시간을 듣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배경지식을 검색해서 보는 게 낫지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C]

"전문성과 현장감이 필요해요. 매년 교육은 진행하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민재단에서 한 교육이 제일 괜찮았던 거 같아요. 현장 위주, 사례 위주, 구체적인 사례 위주, 현장 경험 있는 심사관, 소송팀 분들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고, 난민 인권 단체 분들, 난민 분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하우나 강의를 듣고 싶어요. 언어별로 유형별로, 전문 지식 강의와 관련된 용어 관련해서 차별화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케이스, 난민 심사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E]

"인증제 교육은 공부했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육을 할 때 구분해서 해야할 것 같아요. 수준이 다르니까 통째로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공부했던 사람들은 잘 따라하는데, 배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하겠어요.(수준별 교육?) 네." [참여자 H]

- 수준별 맞춤 교육 필요
- 현장의 니즈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배경지식, 국가 정황 등

03-02 인터뷰 내용 - 자기 평가 1/2

"난민 통역 중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아직은 완벽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최대한 충실하게 오해없이 전달했다고 생각되요. (의미 전달 위주인가요?) 의미 전달 위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직역 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서로 알아듣는 언어를 써야하기 때문에 직역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양쪽이 다 알아듣게 하는 것이 통역의 의무인데, 중립성, 정확성을 다 떠나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부 배경지식 같은 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 생기는 부족함?**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C]

"80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난민통역을 하면서 온갖 상황에 다 노출되었어요.** 앞에서 자해를 하고,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온갖 상황을 다 겪었습니다. 신청인이 갑자기 안한다고 하거나, 애기가 운다거나, 온갖 상황, 온갖 심사관님을 거쳐, 상황에 대한 판단력, 대처능력을 고려해서, 언어능력을 빼고, 통역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요. **개인적으로 내가 영어를 한다고 해도 언어는 항상 새로운 단어가 나올 수 있고 나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발음의 영향도 있고, 내가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100점은 아니고 그거는 사실 멀었지요. 할 때마다 잘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오늘 너무 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많으니까. 그래도 반절 이상은 한다고 생각해요. 50점이 넘는 이유는 이제 초반보다 지금, 이게 초반에는 50점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50점을 넘는다고 생각하냐하면 이제 감정 컨트롤을 잘해요. **심사관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과 하면 편한 이유는 선생님은 말리지 않는대요. 100점이 아닌 이유는 아직도 멀었기 때문이에요.** 통역 할 때도 그런 도덕성과 이런 윤리성보다는 딱 그냥 이성적으로 이거를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이어서 딱 이걸 정리해서 하는 게 내 일인데, 아직 그게 다 100%는 분리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아직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아직 그분들의 그런 슬랭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 다 100%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에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라고 할 때가 아직 있으니까요.**" [참여자 F]

"지금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래하지 않다보니,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 건데, 상대가 없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뷰를 할 때 별 문제가 없어요. 난민통역은 대화통역이 많다보니 좀 더 쉽고, 순차통역이 많아지면 모르지요. 그런데 순차통역이 많지 않다보니, 영향이 크진 않아요. **(대화통역에 강하고, 리뷰 결과 정확성도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순차통역은 약할 수도 있지만 많지 않으니 영향이 크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역인 H]

- 자기 평가의 근거 : 면접관의 평가와 자체 노하우의 축적 수준 → 업무 수행의 지속성이 하나의 지표
- 통역의 정확성 판단 근거로 "리뷰"과정을 활용



4. 결론



◦다학제적 깊이 있는 연구 필요

- 난민법, 난민 인정 과정, 난민 재판 과정이 이슈가 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난민 인정 과정 중 통역인, 난민 전문 통역인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 미비

◦난민 면접의 특징

- 전형적인 제도적 담화에 속함
- 한 사람의 국내 체류 자격을 판단 -> 개별 사건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음
- 난민신청자가 체류국의 국가 정황을 근거로 느낀 개인적 서사와 감정을 위주로 서술

◦연구 개요

- 반구조화 일대일 인터뷰 연구
-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난민 면접에 주로 참여하는 통역인 8인
- 유입 경로 및 동기 / 배경지식 / 통역 특징 / 교육 / 자기 평가 등 5개 분야

○연구 내용

-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하는 직업으로 인식
- 최초 및 통역 수행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배경지식의 확보
 - : 신청자 대부분 해당 문화권 혹은 국가의 비주류 혹은 소속 종교/단체의 독특한 문화 및 언어 구사 -> 동일 국가/문화권 출신 통역인이라도 파악하기 어려움
 - : 통역인 / 신청인 / 면접관이 파악하거나 생각한 배경지식(고유명사 포함)이 다를 수 있음
 - : 통역인만 알지 못하는 신청인의 문화적 배경 존재 -> 통역의 질에 영향
- 통역인 관점에서 면접 과정의 의미에 대한 교육 필요

○연구 한계

- 인터뷰 대상과 범위 제한
- 향후 보다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기대

감사합니다

문경희

이화여자대학교

Email wenqingxi@naver.com
